

## 2018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인문계열 B형)

(가)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나타내는 민주적인 절차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국민들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성원으로서는 당연히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는 국민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투표의 의무는 국민의 많은 의무 가운데 가장 이행하기 쉬운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투표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행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투표율 하락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의무 투표제를 채택하여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투표율이 낮은 경우 투표를 통해 뽑힌 대표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대의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투표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어떤 제도든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부합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처럼 일정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상식에 비추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최근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다친 한 시민이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 중 한 명이라도 119 구조대에 신고를 했더라면 그 시민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을 막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를 구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인간성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일깨우는 것만으로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법을 정해 개인의 도덕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인 만큼,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는 책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개인적 행동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제정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과 도덕은 본질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규범 중에는 이미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규범도 있는데, 도덕규범이 법의 강제력을 갖게 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법적 처벌이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일들, 이를테면 법정 증언이라든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공동 방위나 공동 작업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위험에서 구해 주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악용하지 못하게 간섭하는 등, 자선의 손길을 내미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 살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훨씬 신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막지 못했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예외를 정당화해주는 대단히 분명하고 심각한 경우가 숏하게 많다. 대외적으로 모든 개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보호자인 사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가끔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 즉 사회가 간섭할 권리가 있지만 본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회가 간섭하면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빚을 위험이 있을 때는, 전후 사정을 살펴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우에는 행위 당사자의 양심이 공법(公法)의 빈틈을 메워서 외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제시문 (가)의 '의무 투표제'와 (나)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2. 제시문 (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다)의 입장에서 '의무 투표제'를 옹호하고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반박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